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6. 11.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 “찬송가 539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 3.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 4.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대표 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

기도자

성경 봉독

----- 창세기 21장 14~18절 -----

다 같이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족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매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 하더니
15. 가족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나눔 ----- 무슨 일이나 두려워 말라 ----- 인 도 자

닥쳐온 난관에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느 곳을 보아도 희망을 찾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그와 같은 극한 처지에 빠져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좀 더 삶을 진지하게 직시한다면 편안한 듯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도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삶이란 방향이며 불안입니다. 이는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불안해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본문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러나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종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주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마음대로 하라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처지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 17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마엘의 '소리' (קוֹל, 콜) 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소리는 '음성' (신33:7) 뿐만 아니라 '핏소리' (창4:10), '뇌성' (출9:23) 과 '의미없는 지껄임' (삿5:11) 등도 가리킵니다. 즉 역사를 섭리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극히 사소한 일까지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혼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사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풀지 못할 문제도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가정과 개인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삶이란 실천과 연결될 때에만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인간의 곤고함을 아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찾아오시는 데 있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또한 ‘두려워 말라’는 말은 ‘두려워하다’의 미완료형이므로 당장뿐만 아니라 계속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권고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행동하셨으나 이제는 은혜를 입은 하갈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따라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분 앞에 나아가시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하갈은 광야에서 절망하며 울었습니다. 나 역시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2.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같은 기도까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나눠봅시다.
3.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로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1. 미국의 모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진리를 선포 하도록
2.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3. LA 시위가 만들어내는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화합과 평화가 임하도록
4. 베이 지역을 덮고 있는 맘몬과 음란의 영이 떠나가도록
5. 베이 지역 가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야같은 삶 속에서 방향할 때에도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